

광주FC 승격의 꿈 '담금질'



2차 전지훈련 중인 광주FC의 선수들이 25일 별교스포츠텐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별교에서 광주FC 승격의 꿈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이정호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내세운 광주는 창원에 이어 지난 17일부터 별교스포츠텐터에서 2차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29일까지 별교 훈련을 준비했던 광주는 31일까지 일정을 마무리 조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25일 2022시즌 일정도 발표되면서 캠프에는 긴장감이 더해졌다.

올 시즌 K리그2에서 새로 시작하게 된 광주는 2월 19일 오후 1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김포FC와 첫 대결을 갖는다.

K리그2 개막전으로 치러지는 이 경기는 K리그 1에서 내려온 광주와 K3리그에서 가세한 김포의 맞대결로 관심을 끈다.

K리그1에서 상위 스플릿까지 경험한 광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다. 또 광주는 바로 2라운드에서 '난적' 대전하나시티즌을 만나는 만큼 개막전이 중요하게 됐다. 대전은 '전력 탐색'이라는 이점도 안고 광주를 만난다.

올 시즌 김포의 가세로 K리그2는 11개 팀이 격돌한다. 홀수팀으로 리그가 구성되면서 라운드마다 일정을 쉬어가는 팀이 나온다. 대전이 1라운드 휴식일이 되면서, 광주 전력을 분석한 뒤 첫 경기에 나서게 되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

초반 흐름이 중요한 만큼 광주는 패기의 김포와 노련한 대전과의 1·2라운드 경기에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아직 이정호 감독의 마음에 속 드는 몸 상태는 아니지만 점점 선수들의 움직임이 매서워지고 있다. 전력도 갖춰지고 있다.

헤이스에 이어 원발잡이 윙포드의 새 외국인 선

별교스포츠텐터서 2차 전지훈련 31일까지 일정 미뤄 조직력 강화 엄지성 복귀·엄원상도 출격 4~5차례 실전 베스트 멤버 가리기

수가 곧 팀에 가세해 손발을 맞추게 된다. 남은 외국인 선수 영입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또 '벤투호'에서 A매치 데뷔전에 이어 데뷔골까지 장식하면서 큰 경험을 쌓은 엄지성이 25일 팀에 복귀했고, 팔 골절 부상으로 재할에 집중했던 엄원상도 연습경기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주장 안영규를 중심으로 선수들도 하나로 뭉쳐 승격을 다짐하고 있다.

개막에 앞서 이정호 감독은 '2월 7일'을 디데이로 잡았다.

앞서 2차례 연습경기를 갖고 선수들의 전반적인 몸상태를 점검한 광주는 앞으로 4~5차례 더 실전을 치르며 베스트 멤버를 가릴 예정이다.

2월 7일과 12일, 전지훈련 막판에는 K리그1 팀과의 연습경기도 예정됐다.

시즌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상'이기 때문에 이정호 감독은 "무리하게 끌어올리다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선수들에게 2월 7일 연습경기에 맞춰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감독은 2월 7일 강릉을 상대로 '육성가리기'를 끝내고, 2월 12일 경기를 통해 베스트11을 시험해볼 전망이다.

'체력'이 관건이 될 시즌인 만큼 광주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준비 기간이 빠듯한 만큼 전지훈련에서도 체력과 전술을 동시에 만들어 가고 있다.

오전에는 부상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근력 운동에 집중하고 있고, 오후에는 전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비 훈련'을 통해 전술훈련을 하는 동시에 체력까지 키우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정호 감독은 "오후에 전술훈련을 하는 동시에 체력을 올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수비훈련을 하면 체력적으로 힘들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공격 훈련이 재미있겠지만 수비는 공 없이 움직여야 해서 체력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언급했다.

한편 2월 19일 개막하는 K리그2는 오는 10월 15일까지 팀 당 40경기씩 소화하게 된다.

광주와 김포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후 4시에는 지난해 K리그2 최초 FA컵 우승 역사를 작성한 전남드래곤즈와 FC안양이 맞대결을 한다.

2월 20일에는 안산-부산(오후 1시 30분), 경남-서울이랜드-부천-충남아산(이상 오후 4시)의 대결이 펼쳐진다.

광주와 전남의 시즌 첫 '열로더비'는 4월 1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개된다.

플레이오프 일정은 10월 19일 시작된다. K리그 2 4위와 5위가 만나는 준플레이오프 대결을 시작으로 10월 23일 플레이오프가 진행된다.

K리그1 11위와 K리그2 2위가 대결하는 승강플레이오프는 10월 26일, K리그1 10위 팀과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가 만나는 승강플레이오프는 10월 30일에 열린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세밀함·투지 키워 '만나기 싫은 팀' 만들 것"

광주FC 이정호 감독

수비 조직력에 중점 훈련 이길 팀 확실히 이기고 가겠다

광주FC의 이정호 감독이 세밀함과 투지를 더해 '만나기 싫은 팀'을 만들고 있다.

이정호 감독은 오는 2월 19일 김포FC를 상대로 '감독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 이 감독은 광주만의 색을 만들기 위해 쉬는 날도 잊었다.

휴식날이었던 지난 24일에도 이 감독은 20명의 선수와 개별 미팅을 하느라 훈련 날 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냈다. 자신의 축구를 이해시키고, 선수들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화는 그라운드에서도 계속된다. 감독과 선수들, 선수들과 선수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훈련 시작 전에도 미팅은 루틴이다. 경기 영상 등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잘된 점 등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선수들은 더 효율적으로 훈련에 집중한다.

이 감독은 "공격수와 수비수끼리 나눠서 그룹훈련을 하는 걸 좋아한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조직력이 만들어진다. 나눠서 하다가 공격, 수비 합쳐서 훈련하다 보면 공격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수비에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수비 조직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시즌 광주는 54골을 내주면서 최다 실점 2위 팀이 됐다. 앞서 성남, 제주에서 최소실점 상위팀을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 수비부터 가다듬고 있다. 단 순히 막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 동작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세밀한 수비를 강조한다.

이 감독은 "상대가 어느 발로 공을 잡았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등 상황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수비를 하게 하고 있다. 수비는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된다.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을 하면서 수비 조직력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훈을 빼고 전원 새 얼굴로 바뀐 골키퍼는 광주의 공격 성향에 맞춰 지켜볼 생각이다.

이 감독은 "김경민은 서울이랜드에서 뛰었던 선수고 포항에서 온 이준도 경쟁력이 있다. 신승훈, 노희동도 계속 봤던 선수들이다. 우리는 공격적인 수비를 할 것이다. 그만큼 상대가 뒤를 노릴 것이다. 후반 커버를 할 수 있는 선수를 생각해서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수비를 강조하고 있지만 '수비 센터백'은 이번 전반기 가장 가다듬어야 할 부분.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는 가능성을 봤다. 새 얼굴 중에서는 유스 출신의 정호연을 주목하고 있다.



이 감독은 "포지션 파괴도 하면서 선수들을 보고 있다. 22세 이하 선수 4명도 경정을 시키고 있다"며 "단국대에서 온 정호연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중앙 미드필더, 윙백 등 다양하게 시켜 보고 있다.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포지션 소화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이 원하는 광주는 상대의 허를 내두르게 하는 팀이다.

이 감독은 "상대에게 짜증 나는 팀이 되면 좋겠다. 광주하면 고개를 젓게 하고 싶다. 상대가 '얼마나 죽기살기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싶다. 포기하지 않는 팀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싸움닭'을 조련하고 있는 이 감독은 세밀하게 초반 5경기를 구상하고 있다. '일관성'이 그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는 "초반 5경기가 중요하다. 4경기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온다"며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강팀한테 강하고, 약팀한테는 더 강하자고 말한다. 경기에서 이기든 지든 선수들 표정도 똑같으면 좋겠다.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광주는 2월 19일 김포 FC를 상대로 승격을 위한 항해를 시작한다. 일단 플레이오프를 1차 목표로 해서, 승격이라는 관문을 넘을 생각이다.

이 감독은 "전남과의 승부가 기대된다. 쟁쟁한 상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승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남과의 결과가 좋아야 한다"며 "당연히 승격이 목표인데 플레이오프를 생각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하다가 보면 목표를 상향 조정하게 될 것이다. 승점을 생각하겠다. 이길 팀은 확실하게 잡고, 비겨야 할 때는 비기면서 전략적으로 승점을 가져가겠다"고 전략을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벤투호, 황의조 있음에 '손' 없어도 든든

27일 월드컵 최종예선 레바논전 카타르행 빨리 확정할 수도

벤투호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행 조기 확정에도 도전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7일 (이하 한국시간) 오후 9시 레바논 시돈의 사이다 무니시팔 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7차전을 치른다.

이어 내달 1일 오후 11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시리아와 8차전을 소화한다.

이번 중동 2연전에서 벤투호는 카타르행을 조기 확정할 수 있다.

한국은 A조 6개국 중에서 이란(승점 16·5승 1무)에 이은 조 2위(승점 14·4승 2무)를 달리고 있다.

한국과 3위(승점 6) UAE의 승점 차는 8로 벌어져 있다.

한국이 첫 경기인 레바논전에서 승리하고, UAE가 시리아를 상대로 이기지 못하면 한국의 본선행이 확정된다.

벤투호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중동 2연전에 앞서 국내파 위주로 터키 안탈리아에서 전지 훈련을 소화한 가운데, 전술 중 유럽 팀을 상대로 치른 두 차례 평가전에서 모두 4점 차 완승을 했다. 아이슬란드를 5-1, 몰도바를 4-0으로 완파해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이제 해외파까지 가세한다.

벤투 감독은 황의조(보르도)와 김민재(페네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앞둔 한국 남자 대표팀 황의조와 이재성이 25일(현지시간) 터키 숙소에서 인사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바체), 정우영(알사드), 정우영(프라이부르크), 황인범(루빈 카잔), 이재성(마인츠) 등 6명의 유럽·중동 리거들을 불러들였다.

비록 부상 중인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이 빠졌으나, 센터백 김민재부터 허리의 정우영(알사드)-황인범, 최전방의 황의조까지 벤투호 척추 라인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특히 부상으로 최종예선 5, 6차전에 나서지 못

했던 황의조의 발끝에 시선이 집중된다. 황의조는 이번 대표팀 합류 직전 소속팀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폭발했다.

조 4위(승점 5)에 자리한 레바논은 3위 UAE, 5위(승점 4) 이라크와 치열한 3위 싸움을 벌이고 있어 벤투호를 상대로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벤투호로서는 최종예선에서 2골씩을 넣은 공격수 수니 사드, 모하마드 크두를 경계할 필요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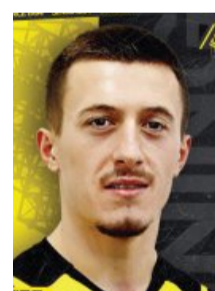
다.

한국은 레바논과 통산 전적에서 11승 3무 1패로 크게 앞선다.

다만 레바논 원정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팽팽했다.

레바논은 11월부터 3월까지 우기다. 이번 경기 당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쌀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전남, 코소보 출신 공격수 레오나르드 플라나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스웨덴에서 활약한 코소보 출신의 외국인 공격수 레오나르드 플라나(Leonard Pllana·사진)를 영입했다.

1996년생인 플라나는 연령별 대표를 지냈으며 2014년 18세의 나이에 스웨덴 무대에 진출해 157경기 출전 40득점 12도움을 기록했다.

플라나는 스웨덴에서 그레베스타드 IF, 달쿠르드 FF, 노르비 IF, GAIS를 거쳐 2020년 전 소속 팀인 IK 브라게에 입단해 31경기 10득점 7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32경기에 출전해 15득점을 올리면서 경기당 평균 0.5골을 기록, 팀 에이스로 떠올랐다.

185cm·75kg의 체격을 갖춘 플라나는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드리블이 좋고, 좌우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또 탁월한 마무리 능력을 갖췄으며 좌우로 찢어주는 패스 능력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최전방과 2선 자원들과의 호흡을 통한 공격 다변화는 물론 왼발을 활용한 볼 컨트롤과 킥 능력도 좋아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활용도도 기대된다.

플라나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구단에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줘서 자가격리 중에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었다. 팀에 잘 적응해서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고, 3개 대회를 치르는 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